

“방금 들었어? BTS노래 나왔어” 음악으로 더 뜨거운 열기



선수들의 멋진 경기 시작과 끝 음악으로 함께 해 전 세계로 생중계, K-POP 인기 타고 ‘한류효과’

수영과 한류가 만났다. 음악으로 더욱 더 흥겨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

1.65점 차, 1골, 0.01초에 승부가 가려지는 숨 막히는 경쟁의 연속이지만 대회 현장은 ‘축제’ 같다. 선수들의 혼신을 다한 승부에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져 경기장은 때론 콘서트장이 된다.

지난 20일 끝난 다이빙은 자칫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남자 종목 예선의 경우 50명이 넘는 선수가 돌아가면서 6차 시기를 뛰기 때문에 지켜보는 이들은 이내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이 멋진 연기가 끝난 뒤에는 경기장에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세계적인 보이밴드인 BTS의 ‘DNA’, 마론5의 ‘Sugar’,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등 세계적인 히트곡 등이 지루해질 수 있는 경기장 분위기를 띄웠다.

물론 다이빙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 아티스틱 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경영 종목도 경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음악과 함께 했다. 중간중간 장내 아나운서가 나와 응원을 유도하고,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관중석을 찾아 함께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춘다.

경기장에서만 음악이 활약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로 대회가 생중계되면서 예상치 못한 ‘한류 효과’도 누리고 있다. 대회 현장에서 나오는 음악에 K-POP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SNS에는 “방금 들었어? BTS노래가 나왔어”라며 대회 중계 화면을 캡처한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공식적인 ‘올림픽 채널’ 트위터 계정도 ‘광주에서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추는 관람객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아예 K-POP 홍보대사로 나선 선수도

있었다.

아티스틱 수영의 선구자인 미국의 빌 메이(40)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에 맞춰 혼성 듀엣 테크니컬 경기를 해 화제를 모았다. 덕분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전 세계 수영팬들에게 어필했다.

오택근(37) 조지워 경기연출 매니저는 “선수들이 합성을 들으면 경기력이 향상되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고 경기장 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등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 선수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내 선수들은 국제 대회 나가면 무조건 강남 스타일이 나온다고 했다. 해외 선수들은 매일 듣던 노래만 나와서 한국에 온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예전에는 국제 대회하면 팝만 틀어야 할 것 같은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40% 정도를 K-POP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구팬이기도 한 그는 야구 선수들의 등



다이빙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음악으로 경기에 활력과 흥을 돋우는 플레이어와 매니저. /특별취재단=최해민 기자 choi@

장소에 착안해 선수들에게 신청곡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수구 경기에서도 각 팀 선수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음악에 맞춰 경기장에 등장했다. 한국대표팀은 영화 국가대표

OST를 등장 음악으로 사용했다.

오 매니저는 “평창에서 윤성빈 선수 경기할 때 당시 음악 감독님이 ‘그대에게’를 선택했다. 도입부와 (선수가)출발할 때 뛰 어가는 부분이 딱 맞아서 울컥하니 전율이

돌았다. 보통 치어리딩을 생각나게 하는 곡인데, 당시 음악의 힘을 느껴서 이번 대회에서도 그 부분에 욕심을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스포츠 경기 열리는 곳 어디든 갈 것...친절한 광주에 감사”

이탈리아 출신 사진기자 76세 베빌리쿠아 줄리아노씨 서울올림픽도 참가...최다 올림픽 참여 사진기자상 수상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세계 어느 곳이든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곳이라면 내가 있을 거다.” 동-하계 올림픽 스물 여섯 번, 열 두 번의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 대회에서 사진을 촬영해온 기자가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사진기자 베빌리쿠아 줄리아노(76)씨. 그는 수영선수권대회만 18번째 취재라고 했다.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8회 대회임을 고려하면 그가 전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대의 고령이지만 그는 나이를 잊은 듯 10kg에 육박하는 촬영장비를 들고 다니며 선수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200여 명의 기자가 상주하는 미디어 라운지에 그가 들어서면 모든 외신기자들이 인사를 건넨다. 외신기자

들 사이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인터뷰 중간 자신에게 찾아온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기자가 나를 인터뷰하고 있다”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21살이던 1964년 일본올림픽을 시작으로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사진을 찍어온 그는 최다 올림픽 참여 사진기자상을 수상했다.

줄리아노 기자는 “나는 어린 시절 단거리 육상선수였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였던 칼 루이스를 가장 사랑한다”며 “1983년 헬싱키 육상대회에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처음 보고 그의 팬이 됐다. 벤 존슨 도핑 문제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되찾았던 서울올림픽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베빌리쿠아 줄리아노씨가 25일 남부대시립국제경기장에서 취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취재 당시에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2002년 6월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졌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 경기. 한국이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자국의 패배를 지켜본 그는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속도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향했지만, 차는 온데간 데 없었다.

“알고 보니 내가 주차해 놓은 곳이 한국 대통령 차량의 주차구역이었다. 그날 대통령은 오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내 차를 견

인해갔다”며 “다음날 새벽 1시께가 되어서야 소핑센터 근처에서 내 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웃으며 말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내 취재 인생 최악의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두번째 방문이지만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따뜻하고 친절하다. 앞으로 언제 또 한국을 찾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100분의 1초로도 승부 못가린 ‘스вим-오프’

이번 대회 세번째...선수 두명만 최종 승부 가려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경기가 한창인 지난 24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두 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첫 번째 레이스 스타트 대에 오른 선수는 터머시 캔데레시(헝가리)와 안타니 이바노프(불가리아) 두 명뿐이었다.

나란히 4번과 5번 레인에서 물살을 가른 이들은 점영 200m ‘일대일 대결’을 펼쳤다. 승자는 1분59초39로 터차페드를 찍은 캔데레시. 이바노프는 이보다 0.13초가 느렸다.

캔데레시에게는 점영 200m 결승 8번 레인에 설 기회가 주어졌다. 두 선수가 펼친 이 레이스는 준결승 ‘스вим-오프(swim-off)’였다.

경영 기록은 100분의 1초까지만 측정된다. 따라서 경기를 치르다 보면 두 선수의

기록이 완벽하게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메달권 선수의 기록이 같을 경우에는 두 선수 모두에게 메달을 준다.

메달권이 아니라 준결승, 혹은 결승 진출 ‘컷트라인’에 걸린 선수들의 기록이 같다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영 경기 준결승은 8명씩 2개 조 16명으로 치러진다. 결승은 8명 1개 조다.

예선전 16위, 혹은 준결승전 8위 자리에 공동순위자가 나오면 두 선수는 일대일 대결인 스вим오프를 통해 상위 라운드 ‘막자 티켓’의 주인권을 가린다.

보통은 오전 또는 오후의 마지막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 재경기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캔데레시와 이바노프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순서로 레이스를 펼쳤다. 21일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 경영에서는 벌써 세 번의 스вим오프가 나왔다. /특별취재단

오늘의 광주세계수영

△경영=남자 점영 100m·여자 배영 200m·남자 자유형 50m·여자 점영 50m·남자 계영 800m·여자 자유형 800m	배영 200m·남자 자유형 50m·여자 점영 50m 준결승(20시·이상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수구=여자부 순위결정전(14시), 동 메달 결정전(17시), 결승전(18시30분·이상 남부대 수구경기장)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이상 가능한 분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9년 하반기에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일 시 | 2019년 7월 26(금) 오후2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랑비즈타워 1층 모야강의홀)
- 특 전 | 1. 추첨 선물 - 정관장, 가전제품 등
- 2. 참가자전원 - 기념품 제공

※선착순 70명 전화접수 마감

접수전화 062)385-9989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원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농성리 2311㎡ 불투배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완도군 완도읍 산 자연녹지 3306㎡ 전망좋은 생활적합 5000만원
- 완산동 대구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항동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이피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 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안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사지 13억3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룡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형제 2중 주거지 4413㎡ 축적 2억4천 투자에 좋은 4억4천
- 신안군 임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집총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신안 양대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도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점 산 97404㎡ 김정 8억4천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덕간도로 4323㎡ 유동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묘묘앞